

살펴 보기

: 신입사원 토크

신입사원 Talk Talk!

부산경남지역본부 환경위생팀에 새로운 사수가 입사했다. 최근 신입사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협회와 산업보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의 주인공인 서대교 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다.

부산경남지역본부 환경위생팀 서대교 사원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안녕하세요, 서대교 사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부로 부산경남지역본부 환경위생팀에 입사하게 된 서대교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환경위생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원 때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충족감을 주는 회사가 저의 회사 선택 기준이었으며, 일과 사람의 조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또 산업위생사 직무에서 그 보람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에서 전공과 현재 맡은 업무와의 연관성은 어떤가요?

저는 지난 3년간 연구원으로써 다섯 번의 대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프로젝트(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체하여 실시하는 근골격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대학원 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는 정확히 어떤 것이 가요?

작업환경측정으로 작업장의 다양한 특성을 조사하고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포집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완벽함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찾고 적용해보고 피드백하는 것이 제가 가진 장점입니다. (웃음)

반대로 무언가를 할 때 자료를 방대하게 모으려는 습관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료의 양보다는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딱 맞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는 저에게 있어 취미를 떠나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난 뒤, 나 홀로 떠나 바다 위에 펼쳐진 석양을 보는 순간 쌓였던 피로와 안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리하지 못했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초릿대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기는 잡혀도 그만 안 잡혀도 그만이지만, 어떤 물고기와 인사를 할까 매번 기대가 됩니다. 운이 좋아 물고기를 잡는 날에는 직접 손질해서 싱싱한 초밥을 해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초심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보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업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유기화합물, 금속 및 중금속 흡입 등으로 인한 중독, 소음으로 인한 난청,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책임과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단단한 성장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산업위생기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며,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부족함을 지나치지 않고 학습하여 정확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서대교 사원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미래에 담당할 자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서대교 사원 같은 신입사원들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해 간다는 생각을 하니 든든하다. 🐾

